

# '전주별시' 한옥마을서 재현된다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오픈 플랫폼 선보여

### 내달 11일 제6회 '1593 전주별시' 재현행사 개최... 임진왜란 당시 국난극복 과거시험

임진왜란 당시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치러졌던 과거시험인 '전주별시(別試)'가 전주한옥마을에서 재현된다.

전주시는 오는 11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주전통문화연수원과 청연루, 경기전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제6회 '1593 전주별시' 재현 행사를 개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전주별시'는 1593년(선조26) 광해군이 임진왜란 중 전주에 머물며 국난에서 나라를 구할 인재를 뽑기 위해 실시한 과거시험이다.

이날 행사는 △과거시험(국궁, 한글 글짓기·동시·시조, 한시) △국악 공연 △방방례(시상식) △급제자 유가행렬(遊街行列), △사은숙배(謝恩肅拜)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먼저, 과거시험의 경우 청소년부와 성인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청소년부는 국궁과 한글 글짓기(동시) 두 과목이 행사 당일 진행되며, 성인부는 시조와 한시 지상백일장이 진행된다.

국궁(國弓)은 개인전(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 중등부)과 단체전(초·중등 혼합팀)으로 실시되며, 궁도 교육을 이수한 전국의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글 글짓기는 초등부 동시 부문과 성인부 시조 부문이 진행된다. 초등부는 한옥마을 내 청연루(남천교)에서 진행되며, 성인부는 3장 6구의 경시조 형식의 시고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사전 심사를 거쳐 행사 당일 시상식이



임진왜란 당시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치러졌던 과거시험인 '전주별시(別試)'가 전주한옥마을에서 재현된다.

진행된다.

모든 과거시험이 종료된 후에는 과거급제자에 대한 시상식인 방방례(放榜禮)가 진행되며, 급제자에게는 시상상과 어사화가 수여된다.

또한, 시상식 이후에는 과거급제자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채집관과 산배, 친족을 방문하는 전통인 '유가행렬(遊街行列)'이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시작해 은행로, 태조로, 경기전으로 이어진다. 유가행렬에는 전북대학교 국악과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취타대와 (사)전통문화마을의 기수대, 한옥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풍물패 등이 함께한다.

이번 전주별시 응시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누리집(동시) 또는 등기우편(국궁·시조·한시)으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참가 'K-SOUND LIBRARY' 홍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로)은 새롭게 단장한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오픈 플랫폼인 'K-SOUND LIBRARY' 홍보를 위해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3(이하 KMF 2023)에 참가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KMF 2023'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가 주관하는 메타버스 산업 분야 국내 대표 전시회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됐다.

진흥원은 이번 KMF2023에서 새롭게 단장한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오픈 플랫폼을 선보였다.

K-SOUND LIBRARY 홍보 부스에서는 신규 플랫폼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한국형 효과음원이 수집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또, 홍보이벤트로 신규 회원 가입 시, 다양한 경품도 제공됐다.

진흥원이 지난 2013년부터 구축한 효과음원은 △한국적 전통소리 1만2192건 △사회문화적 환경음 7492건 △자연의 소리 2925건 등으로 오픈된 K-SOUND LIBRARY는 영화제작사와 콘텐츠 제작사, 대학의 영화영상 관련학과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새롭게 단장한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오픈 플랫폼인 'K-SOUND LIBRARY' 홍보를 위해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3에 참가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끈 '오징어게임'과 '기생충' 등에도 이 음원이 활용됐다. 진흥원은 향후 K-SOUND LIBRARY를 민간에서 수집·제작한 효과음원을 거래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는 무료·불법 유통에 익숙한 효과음원 사용문화를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여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및 창작물 질적 향상에 기여기 위함이다.

시는 이번 페스티벌 홍보를 통해 K-SOUND LIBRARY 아카이빙 노하우와 신규 플랫폼 기능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K-Sound Library가 미디어기반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및 창작자들에게 많이 홍보돼 한국형 효과음원 많이 사용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나아가 효과음원 국산화 및 K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이끌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주민 화합·공동체 회복 위한 '혁신공동체페스티벌' 열려

깊어가는 가을철을 맞아 전주시 혁신동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축제가 펼쳐졌다.

전주시와 혁신공동체연합회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덕진구 혁신동 영순근린공원에서 '2023 제4회 혁신공동체페스티벌(ICF)'을 개최했다.

혁신공동체페스티벌(ICF)은 혁신동 주민들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상생의 문화예술 축제로,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전주혁신도시와 만성지구가 하나로 합쳐진 통합 혁신동의 원

년으로, 더욱 알찬 소통·상생의 장으로 축제가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21일 '우리동네 칸타빌레'와 22일 '혁신도시 상생 어울림 한마당'의 두 가지 큰 줄기의 문화행사와 더불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날에는 △농촌진흥청 플루트 동호회 △디아트 댄스스튜디오 △달빛하모니합창단 △아트피아어린이합창단 △혁신도시 초·중학교 재학생 등으로 구성된 '온빛오케스트라' 등의 공연으로 구성된 '우리동네 칸타빌레'가 진행돼 주민들에게 음악으로 힐링을 선사했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 초청 국악타임 앙상블 '소리나무'와 중국 청두시 '화리지움'의 특별한 무대로 마련됐다.

이어 둘째 날에는 △'자전거로 꿈꾸는 혁신도시'를 주제로 한 어린이 사생대회 '꼬마화가 모여라' △주민자치 프로그램 식전공연 △혁신가요제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혁신도시 상생 어울림한마당'이 펼쳐졌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설공단, 각종 인증·특허 현황 담은 '명예의 전당' 제작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인증과 특허 현황을 담은 현판을 제작했다.

공단은 공단이 획득한 각종 인증과 특허 현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현판을 제작해 혁신체육관 외벽에 부착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명예의 전당'으로 명명된 이 현판은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 인증

(ISO 22301)'을 비롯한 17개 인증 현황과 '수영장 안전관리 시스템' 등 2개 특허 현황을 담고 있다. 또 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발전적인 시스템을 경영에 접목할 수 있어 공단은 각종 인증 획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은 ISO 22301을 비롯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ISO 45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ISO 37001)', '환경 경영 시스템(ISO 14001)' 등 4개의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가족 친화 기관 인증', '공간 안전 인증', '날씨 경영 우수기업 인증', '지역 사회 공헌 인정제 인증', '채택 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 공신력 있는 국내 인증도 다수 획득했다.

전국 최초로 '대용량 헬스 자동 건조장치'와 '수영장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실내체육관, 제2의 체육거점시설로 만들어야"

### 온혜정 전주시의회 의원, 효율적 운영·관리 통해 활용 가치 높일 것 주장

전주실내체육관의 보존·관리를 통해 전주 제2의 체육거점시설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오래됐다는 이유로 철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낡은 체육관도 리모델링 등을 통해 훌륭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일 전주시의회 온혜정(우야1·2, 호성동(사진)) 의원은 제 4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현재 실내체육관의 효과적 운영과 관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



다"고 밝혔다.

온 의원은 "유럽은 오래된 건물을 잘 보존해 건물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힘을 쏟는 반면, 우리는 노후 건축물로 분류해 철거 대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며 "1973년 건립돼 50여 년 세월을 머무르고 있는 전주 실내체육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전주실내체육관 기능은 2026년 장동에 건립할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옮겨질 계획에 따라 역사적 가치나 인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은 채 부지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사비의 10% 이상이 시민 세금으로 채워졌을 만큼 시민의 열원과 추억이 서린 전주실내체육관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 시민을 위한 제2의 체육거점시설로 진화시켜 나가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 고향에 힘이 되는 법-기부를 통한 나눔입니다  
당신의 작은 기부도 농촌에는 큰 힘이 되니까  
고향에 기부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로 받으세요!

함께하는 100년 농협

###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기부액의 30% 상당 담례품 지급**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등
-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100%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기부금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 시행: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정부 중앙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

- 오프라인: 농협은행·농협

\*기부 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기부 불가)

정읍시지부 지부장 이재연

칠보농협 조합장 권순준

샘골농협 조합장 허수중

정읍농협 조합장 유남영

태인농협 조합장 한상곤

순정축협 조합장 고창인

향토현농협 조합장 유형기

신태인농협 조합장 황휘중

정읍원예농협 조합장 이대건